

아라리오갤러리, 서울과 천안에서
정강자 타계 이후 첫 회고전
《정강자: 마지막 여행은 달에 가고 싶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과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은 1월 30일부터 한국 초기 전위예술을 이끌었고, 평생 '한계의 극복'과 '해방'이라는 주제를 탐구해온 작가 고 정강자(1942~2017)의 첫 회고전 《정강자: 마지막 여행은 달에 가고 싶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정강자 작가의 타계 이후 열리는 첫 전시로, 아라리오갤러리는 한국 현대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정강자 작가의 생을 기리고 50여 년 간의 화업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서울과 천안 전시관을 동시에 열었다. 서울 전시관은 2월 25일까지, 천안 전시관은 5월 6일까지 전시가 진행된다.

정강자는 《청년작가연립전》(1967) 등 당시의 주류 미술에 대한 젊은 작가들의 도전을 응집한 기념비적 전시에 한국 아방가르드 미술 그룹 '신전(新展)' 동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투명풍선과 누드>(1968)로 잘 알려져 있는 그는 한국현대미술 초기 해프닝 및 퍼포먼스를 이끌며 1960-70년대 한국의 문화계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작가다. 이어 전위적 행위미술 그룹 '제4집단'의 멤버로 활동하는 등 미술계와 사회의 주목을 동시에 받아왔다. 특히 그는 자신의 여성성을 숨기지 않은 과감한 작업과 행보로 당시의 언론을 장식하기도 했다. 정강자는 1970년대 후반부터 회화작업에 전념하며 자신의 삶을 다양한 여성상과 자연물, 그리고 기하학적 형태에 투영해 왔다.

아라리오갤러리는 이번 《정강자: 마지막 여행은 달에 가고 싶다》전을 위해 약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작년 7월 작가가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하여 이번 전시가 작가의 타계 이후 최초로 열린 회고전이자 유작전이 되었다. 아라리오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위해 서울 전시관에는 대표작을, 그리고 천안 전시관에는 최근작과 아카이브 자료를 배치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사 내에 특수한 맥락을 점거하고 있는 고 정강자 작가의 화업 전반을 미술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균형있게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아라리오갤러리는 "한국 현대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작가인 정강자는 국내 여성 아방가르드 작가의 선발주자와도 같은 존재"라며, "그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작가였음에도 실험미술에 대한 기여도가 연구되지 않았고, 여성의 신체를 차용한 작업에 대해 선정적인 시각을 감내하는 등 이중소외에 시달렸던 작가"라고 밝혔다. 또, "본 전시는 작가가 타계하기 전부터 함께 준비해 왔던 만큼 작고 후 첫 회고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강자는 1942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키스 미>(1967)와 같은 파격적인 조형작업을 포함하여 <투명풍선과 누드>, <한강변의 타살>(1968), <기성 문화예술의 장례식>(1970)과 같은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그는 이와 같은 행보를 통해 자신이 마주했던 여러 경계와 틀을 해방시키고자 하였으나,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는 작업에 대한 선정적인 시선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는 첫 개인전인 《무체전》(1970)이후 1977년 싱가포르 이주를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 남미 등을 비롯한 세계 오지를 여행하며 국내 모 일간지에 여행기를 연재하기도 했다. 2015년 갑작스럽게 선고 받은 위암으로 인한 약 2년간의 투병생활을 끝으로 2017년 7월 23일 유명을 달리했다.

[별첨1] 작가약력

정강자 JUNG Kangja (1942-2017)

1942 경상북도 대구 출생

학력

1967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18 마지막 여행은 달에 가고 싶다,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서울, 한국
- 2014 수호롬 부산 갤러리, 부산, 한국
- 2013 갤러리 제이원, 대구, 한국
한가람아트 갤러리, 서울, 한국
갤러리아 순수, 서울, 한국
- 2012 슈페리어 갤러리, 서울, 한국
수호롬 부산 갤러리, 부산, 한국
인사아트센터, 서울, 한국
- 2010 하나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 2006 외로운여정, 서호갤러리, 서울, 한국
- 2005 토털 갤러리, 대전, 한국
- 2006 외로운여정, 서호갤러리, 서울, 한국
- 1979 누산타라 국립현대미술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1970 무체전, 소공동 국립공보관, 서울, 한국

주요 그룹전

- 2017 역사를 몸으로 쓰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아시아 여성미술가들, 전북도립미술관, 전북, 한국
- 2006 찾아가는 미술관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1981 바틱전, 공간미술관, 서울, 한국
- 1970 한국 청년화가 6인전, 도키와 화랑, 도쿄, 일본
- 1969 한국일보초대전, 서울, 한국
- 1967 청년작가연립전, 국립공보관, 서울, 한국

주요 퍼포먼스

- 1970 <기성문화예술의 장례식>, 서울, 한국 (손일광, 정강자, 정찬승)

1969 <휴지의상>, 장충단공원, 서울, 한국 (손일광, 정강자, 정찬승)

1968 <투명풍선과 누드>, 제4회 현대미술세미나, 세시봉 음악감상실, 서울, 한국

<한강변의 타살>, 제2한강교 아래 모래사장, 서울, 한국 (강국진, 정강자, 정찬승)

주요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아라리오뮤지엄 (한국)

예술의전당 (한국)

홍익대학교 미술관 (한국)

[별첨 2] 작품이미지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전시작품



억누르다 *To Repress*, 1968, cotton, steel pipe, 250 x 215 x 95 cm

이 작품은 정강자가 1968년에 제작한 설치작품으로 여러 층의 대형 목화솜에 쇠파이프를 얹어 솜의 중앙이 눌리게 한 설치작품이다. 옷이나 침구류의 재료가 되는 솜은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맥락이 닿아있기도 하다. 작가는 가벼운 솜이 철제 파이프의 무게에 짓눌리는 효과를 통해 당시의 성별 이데올로기와 성정치의 역학관계를 유희하고 있다.



사하라 *The Sahara*, 1989, oil on canvas, 162.2 x 130.3 cm

정강자는 1970년 첫 개인전 《무체전》을 군사정권의 억압 아래 중단한 채 싱가포르로 이주하였다. 이어 그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중남미 8개국, 아프리카 8개국, 서남아시아 6개국, 남태평양

6개국 등 오지를 여행하며 풍경을 캔버스에 담았다. 이 작품은 원시의 풍경 속 떠오른 풍요로운 '어머니로서의 대지(The Mother Earth)'를 통해 끊임없는 도전을 가능케 하는 예술적 열망을 느껴볼 수 있다.



한복의 모뉴먼트 *Monument of Hanbok*, 1998, oil on canvas, 162.2 x 130.3 cm

정강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추상적 형태를 이용한 회화 작업에 몰두했다. 그는 다년간의 오지 여행을 마친 뒤 한국의 전통문화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느껴, 한복 등의 형상을 추상화해 여성 예술가로서 느꼈던 복합적 감정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자 했다. 그는 한복치마를 "수천 년을 남성우월주의의 지배에서 억압받고 유린당해온 우리 여인들의 깃발"이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오래도록 한국 여성의 가슴을 졸라 맨 한복치마는 그의 작품에서 끈이 풀린 채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기도 하고, 산처럼 쌓여 커다란 기념비를 만들기도 한다.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전시작품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Even If the Earth Falls Tomorrow...*, 1995, oil on canvas, 160 x 130 cm

작품 속 등장하는 여인들은 작가를 표현하는 분신으로 '주체하기 힘든 끊임없는 변화의 욕망을 표현한 아이콘(icon)'이었다. 작품 속에서 이들은 내면의 양가적 모습 때문에 갈등에 빠져 있기도, 어딘가에 수줍게 숨어 있기도, 숲 속을 떠다니며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또 이들은 캔버스 앞에 서서 마주했던 고독함, 그리고 일상에서 꿈꾸는 달콤한 휴식을 대신하며 현실 속 억압받았던 자아를 해방시키는 상징적 기호로 작용하기도 한다.



춤 *The Dance*, 2004, oil on canvas, 73 x 60.5 cm

정강자는 50여 년의 화업을 아울러 특정 매체나 주제에 얽매이지 않으려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2000년대 중반부터 원형을 활용한 추상적 조형언어를 작품세계로 끌어들었다. 이를 통해 미술의 전통적 매체와 퍼포먼스, 여성과 남성, 억압과 해방, 전통과 현대와 같은 기존의 이분법적 질서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가 발견한 해답인 '원'은 캔버스를 힘차게 채워나가며 작가 개인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 우주(宇宙)적 관심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